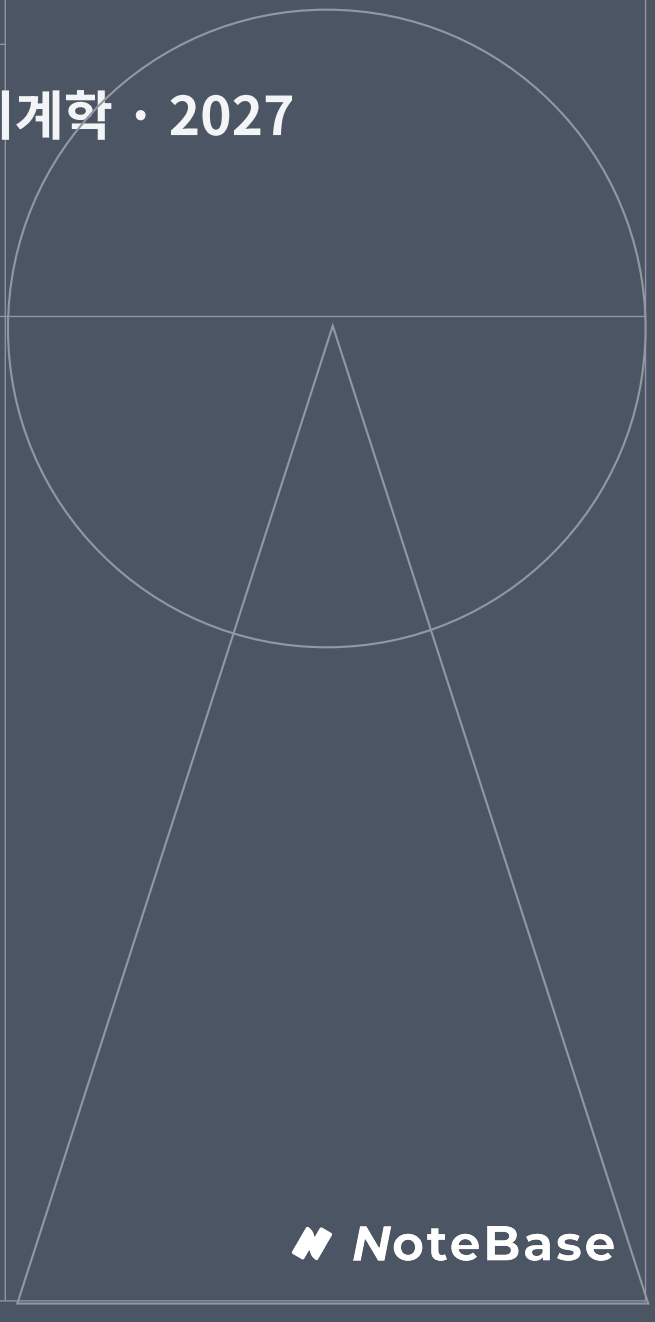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7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7

문 1. 다음 중 기말 장부마감 이후 차기이월되는 계정으로만 묶인 것은?

㉠ 감가상각비 ㉡ 대손충당금 ㉢ 예수금
㉣ 미지급임차료 ㉤ 현금과부족 ㉥ 당좌차월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산·부채 관련 잔액은 이월하지만 당기의 비용은 마감한다. 현금과부족도 결산 시 정리한다. 이월 대상인 **대손충당금·예수금·미지급임차료로만 구성된 조합**을 고른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감가상각비 (X): 자산 사용으로 당기에 발생한 **비용계정**이다. 당기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마감하므로 다음 기로 잔액을 이월하지 않는다. 자산 차감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과 다르다.

㉡ 대손충당금 (O): 채권의 회수 가능 금액을 나타내기 위한 **자산 차감계정**이므로 잔액을 차기로 이월한다. 비용인 대손상각비와 구별한다.

㉢ 예수금 (O):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금액을 잠시 보관하는 데서 발생한 **부채계정**이다. 기말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의무가 다음 기에도 남는다.

㉣ 미지급임차료 (O): 이미 발생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에 대한 **부채계정**이다. 당기 비용인 임차료는 마감하지만, 미지급임차료 잔액은 이월한다.

㉤ 현금과부족 (X): 장부와 실제 현금의 차이를 원인 확인 전 임시로 기록한다. 결산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한 부족은 잡손실, 초과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므로 **현금과부족 자체를 다음 기에 이월하지 않는다**.

㉥ 당좌차월 (O):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에 대한 **은행 차입 성격의 부채**이다. 미상환 잔액은 다음 기로 이월한다.

이월 대상은 ㉡·㉢·㉣·㉥이다. 제시된 조합 중 이월되는 계정만 포함한 것은 **㉡·㉢·㉣인** ②이다. ①은 ㉠, ③과 ④는 ㉤을 포함하므로 제외한다.

NoteBase

문 2.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경 요인이 유의적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에서 재무제표 이외에 환경보고서와 같은 보고서를 제공할 경우,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③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④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준서에 공시 요구가 있더라도 **해당 정보가 중요하지 않으면 공시할 필요가 없다**. 재무제표 공시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춘다.

선지별 해설

① X: 재무제표 외부에 제시하는 환경보고서 같은 별도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표시 요구의 적용범위 밖이다. 환경 요인이 해당 기업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환경보고서 전체가 그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에 인식·공시해야 할 환경 관련 거래나 의무와 구별한다.

② O: 특정 공시를 요구하는 기준서가 있어도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으면 해당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과 규모를 기업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며,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③ X: 유동·비유동 구분법을 사용하면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유동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각각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단기간에 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유동으로 바꾸지 않는다.

④ X: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관련 내용을 공시하거나 주석·보충자료로 설명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인식·측정에 부적절한 정책을 적용한 문제는 적절한 정책의 적용으로 해결해야 하며, 설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 ②가 옳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순자산 ₩800으로 도소매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년 1월 1일 단위당 ₩100에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기말에는 단위당 ₩120으로 상승하였으며, 기중 물가상승률은 3%이다. 20×1년 12월 31일 순자산이 ₩1,200일 때, 일반구매력과 실물자본유지 개념에 의한 이익의 합계액은?

① ₩616

② ₩640

③ ₩712

④ ₩776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일반구매력 기준은 3%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이익이 376원이고, 실물자본유지 기준은 상품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이익이 240원이다. 두 이익의 **합계는 616원**이다.

계산 과정

일반구매력 자본유지: 기초 순자산 800원이 가진 구매력을 기말에도 유지하려면 일반물가상승률 3%를 반영해야 한다. 유지할 자본은 800 × 1.03 = 824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기말 순자산이 이익이다. 따라서 일반구매력 기준 이익은 1,200 − 824 = 376원이다.

실물자본유지: 기초 영업능력인 상품 구입능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일반물가가 아니라 해당 상품가격의 상승**을 반영한다. 기초 순자산으로 구입 가능한 상품은 $\frac{800}{100}$ = 8단위이다. 기말에도 같은 8단위를 확보하려면 8 × 120 = 960원이 필요하므로 실물자본유지 이익은 1,200 − 960 = 240원이다.

합계: 일반구매력 기준 이익 376원과 실물자본유지 기준 이익 240원을 더하면 376 + 240 = **616원**으로, ①에 해당한다. 두 기준은 각각 일반물가와 개별 상품가격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NoteBase

문 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구 조건이 있는 유류저장고(취득원가 ₩5,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으며, 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복구비용은 ₩1,000,0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경우, 20×1년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이자비용)은? (단, 시장이자율은 7%이며, 단일금액 ₩1의 미래가치는 1.4026, 현재가치는 0.7130이다.)

① 감가상각비: ₩1,142,600, 복구충당부채전입액: ₩49,910

② 감가상각비: ₩1,142,600, 복구충당부채전입액: ₩98,182

③ 감가상각비: ₩1,282,520, 복구충당부채전입액: ₩49,910

④ 감가상각비: ₩1,282,520, 복구충당부채전입액: ₩98,182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713,000원**을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1,142,600원**, 복구충당부채의 7% 이자비용은 **49,910원**이다.

계산 과정

복구의무가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취득 시점에 예상 복구지출의 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유류저장고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미래 지급액 자체를 그대로 취득원가에 더하지 않는다.

5년 후 복구비용 1,000,000원의 현재가치는 문제에서 제시한 현재가치계수 0.7130을 적용한 713,000원이다. 따라서 최초 복구충당부채는 713,000원이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원가는 5,000,000+713,000=5,713,000원이다.

잔존가치가 0이고 5년 정액법이므로 20×1년 감가상각비는 $\frac{5,713,000-0}{5}=1,142,600$원이다. 1월 1일 취득이므로 1년분 전체를 상각한다.

시간 경과로 복구충당부채의 할인액이 환입되는 이자비용은 기초 부채 713,000원에 할인율 7%를 곱한 49,910원이다. 연말 충당부채는 713,000+49,910=762,910원이다.

미래가치계수 1.4026은 현재금액을 미래로 환산할 때 쓰는 계수이다. 이미 미래금액으로 제시된 복구비용을 취득 시점에 측정할 때에는 현재가치계수 0.7130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1,142,600원, 복구충당부채전입액 49,910원인 ①이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재고자산의 가격을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20×1년 재고자산 관련자료가 다음과 같다. 20×1년 8월 1일 판매시점의 매출총이익은?

일자	적요	단위(개)	원가(₩)
1/1	기초재고	50	100
5/1	판매	30	130
7/1	구입	80	110
8/1	판매	70	132

① ₩1,540

② ₩1,620

③ ₩1,680

④ ₩1,74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이동평균법은 **새로 구입할 때 남은 재고와 구입분의 원가를 평균**한다. 7월 1일 평균원가는 개당 108원이므로 8월 1일 매출총이익은 (132 − 108) × 70 = 1,680원이다.

계산 과정

5월 판매 후 재고: 기초재고는 50개, 개당 원가는 100원이다. 5월 1일 30개를 판매할 때의 매출원가는 30 × 100 = 3,000원이며, 남은 재고는 20개, 총원가 2,000원이다. 표의 판매행 금액 130원은 판매단가이지 재고원가가 아니다.

7월 구입 후 이동평균: 80개를 개당 110원에 구입하여 구입원가는 8,800원이다. 기존 재고와 합치면 수량은 20 + 80 = 100개, 총원가는 2,000 + 8,800 = 10,800원이다. 이동평균단가는 $\frac{10,800}{100} = 108$원이다.

8월 매출총이익: 8월 1일 70개를 개당 132원에 판매하므로 매출액은 70 × 132 = 9,240원이다. 매출원가는 직전 이동평균단가를 적용한 70 × 108 = 7,560원이고, 매출총이익은 9,240 − 7,560 = 1,680원이다. 5월의 매출총이익을 합산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8월 1일 판매시점의 매출총이익은 1,680원으로, 선택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주)한국의 20x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1년 재고자산 매입액은? (단, 재고자산의 정상적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장부수량	실제 재고수량	단위당 취득원가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10개	100개	₩1,000	₩980

○ 추가자료

1) 기초재고 ₩80,000

2) 재고자산감모 중 60%는 정상적인 감모로 판단

3) 매출액 ₩1,000,000,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의 30%

① ₩722,000

② ₩726,000

③ ₩731,720

④ ₩733,8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매출원가 700,000원에 기말재고 98,000원과 별도 비용인 비정상 감모손실 4,000원을 더하고 기초재고 80,000원을 차감한다. **매입액은 722,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매출총이익률이 매출액의 30%이므로 매출원가율은 70%이다.
$1,000,000 \times 70\% = 700,000$원
이 매출원가에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 **정상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2. 기말재고는 실제 수량에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100 \times 980 = 98,000$원
장부수량 110개가 아니라 실제 남은 100개를 사용한다.

3. 감모 10개 중 비정상 감모는 40%이다.
$(110 - 100) \times 1,000 \times 40\% = 4,000$원
이 금액은 매출원가와 별도로 처리된 비용이므로 원가흐름을 맞출 때 따로 반영한다. 정상 감모손실 6,000원과 평가손실 2,000원을 다시 더하면 이중계산이다.

4. 기초재고와 매입액은 매출원가·비정상 감모손실·기말재고로 배분된다. 따라서

aligned&매입액=700,000+4,000&+98,000-80,000=722,000aligned
원

정답은 ① **722,000원**이다.

NoteBase

문 7. ㈜한국은 ㈜대한과 다음과 같이 유형자산을 상호교환하였으며, 교환과정에서 ㈜한국은 ㈜대한으로부터 현금 ₩300을 수취하였다.
동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한국의 차량에 대한 공정가치가 ㈜대한의 기계에 대한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한국과 ㈜대한이 유형자산 교환 시 인식할 처분손익은?

	㈜한국의 차량	㈜대한의 기계
장부금액	₩4,000	₩3,600
공정가치	₩4,500	₩3,000

① (주)한국: 처분손실 ₩700, (주)대한: 처분이익 ₩500

② (주)한국: 처분손실 ₩700, (주)대한: 처분이익 ₩600

③ (주)한국: 처분이익 ₩500, (주)대한: 처분손실 ₩0

④ (주)한국: 처분이익 ₩500, (주)대한: 처분이익 ₩6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더 명백한 차량의 공정가치 4,500원을 기준으로 교환을 측정한다. 차량의 장부금액 4,000원과의 차이는 한국의 이익 500원이며, 현금 300원을 제외한 기계 처분대가 4,200원과 장부금액 3,600원의 차이는 **대한의 이익 600원**이다.

계산 과정

측정기준: 상업적 실질이 있는 유형자산 교환이며 차량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차량의 공정가치 4,500원**을 교환가치의 기준으로 삼는다. 기계의 제시 공정가치 3,000원을 우선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하지 않는다.

㈜한국의 처분손익: 제공한 차량의 장부금액은 4,000원이고 처분대가의 기준금액은 4,500원이다. 따라서 차량처분이익은 4,500 − 4,000 = 500원이다. 한국은 현금 300원도 받았으므로 취득한 기계의 원가는 4,500 − 300 = 4,200원이 된다.

㈜대한의 처분손익: 대한은 기계와 현금 300원을 주고 공정가치 4,500원의 차량을 취득한다. 따라서 기계만의 처분대가는 4,500 − 300 = 4,200원이다. 이를 기계의 장부금액 3,600원과 비교하면 기계처분이익은 4,200 − 3,600 = 600원이다.

선택지 대응: ㈜한국은 **처분이익 500원**, ㈜대한은 **처분이익 600원**을 인식하므로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추정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확률을 가진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불확실성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④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무형항목 지출을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했다면 **나중에 무형자산 원가로 되살릴 수 없다**. 이후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발생하는 적격 지출과 과거 비용을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해당 프로젝트의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자산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발생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X: 추정치에 서로 다른 확률을 가진 가능한 결과가 있다면 그 불확실성은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한다. 가능한 결과의 범위와 발생확률을 고려하는 것이며,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그 영향을 측정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③ X: 경영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을 중단한다. 이미 사용 가능한데도 아직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는 단순히 미사용 상태라는 이유로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O: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 지출을 이후 무형자산 원가로 소급하여 인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기 전 비용 처리한 지출은 이후 요건이 충족되어도 자산으로 되돌리지 않고, 요건 충족 이후의 적격 지출을 구분하여 자산화한다.

따라서 과거에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을 이후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한 ④가 옳다.

NoteBase

문 10. ㈜ 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취득(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고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동 건물의 후속평가에 대해서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1년 말 회계처리에 대하여 옳은 것은? (단, 20×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는 ₩470,000이다.)

①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기말 감가상각비는 인식하지 않는다.

②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기말 장부금액은 ₩470,000이 된다.

③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당기손실이 ₩30,000 발생된다.

④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재평가잉여금이 ₩20,000 발생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 없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500,000원에서 470,000원으로 감소하여 **당기손실 30,000원**이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투자부동산이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과 일반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① X: 투자부동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면 건물은 감가상각한다. 당기 감가상각비는 $\frac{500,000-0}{10}=50,000$원이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례에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때이다.

② X: 원가모형의 기말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500,000원에서 감가상각비 50,000원을 차감한 450,000원이다. 공정가치가 470,000원이라는 이유로 원가모형 장부금액을 그 금액으로 올리지 않는다.

③ O: 공정가치모형에서는 별도 감가상각 대신 기말 공정가치 470,000원으로 측정하고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따라서 취득 시 장부금액 500,000원 대비 30,000원의 공정가치평가손실이 발생한다.

④ X: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의 변동은 당기손익이며 재평가잉여금이 아니다. 20,000원은 원가모형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450,000원과 공정가치 470,000원을 비교한 차이인데,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그 감가상각을 먼저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도 잘못이다.

따라서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당기손실 30,000원을 인식한다는 ③이 옳다.

NoteBase

문 11.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거래원가 ₩300을 지급하고 타사의 지분상품을 ₩10,000에 취득하였다. 20×1년과 20×2년 기말 공정가치는 각각 ₩10,700, ₩9,800이며, 20×3년 4월 1일 동 상품을 ₩9,900에 처분하였다. 이 지분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 FVPL금융자산)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회계처리에 대하여 옳은 것은?

① FVPL금융자산일 경우, 20×1년 말 동 금융자산평가이익은 ₩400이다.

② FVPL금융자산일 경우, 20×2년 말 동 금융자산평가손실은 ₩200이다.

③ FVOCI금융자산일 경우, 20×2년 말 동 금융자산평가손실 잔액은 ₩500이다.

④ FVOCI금융자산일 경우, 20×3년 동 금융자산처분이익 ₩100을 인식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FVOCI 지분상품은 거래원가를 포함한 10,300원으로 최초 인식한다. 20×2년 말 공정가치 9,800원과의 차이인 **누적 평가손실 잔액은 5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FVPL 금융자산의 거래원가 300원은 취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자산의 최초 장부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년 말 평가이익은 10,700 − 10,000 = **700원**이다. 거래원가 비용까지 합친 당기손익 순효과 400원과 평가이익 자체를 구별해야 한다.

② X: FVPL 금융자산은 직전 기말의 공정가치가 다음 기간의 장부금액이 된다. 따라서 20×2년 말 평가손실은 10,700 − 9,800 = **900원**이다. 최초 취득금액 10,000원과의 차이 200원은 해당 연도 평가손실이 아니다.

③ O: FVOCI로 지정한 지분상품은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므로 최초 장부금액은 10,000 + 300 = 10,300원이다. 20×2년 말 공정가치 9,800원과 비교한 누적 평가손실 잔액은 10,300 − 9,800 = **500원**이다. 첫해 평가이익 400원에서 둘째 해 평가손실 900원을 차감해도 누적손실 500원이다.

④ X: FVOCI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처분하더라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처분일까지의 가치증가 9,900 − 9,800 = 100원도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며 금융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처분시 누적 기타포괄손실 400원은 자본 내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2.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옥건설을 시작하였으며, 20×2년 10월 31일에 완공하였다. 사옥건설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은? (단, 차입금 이자는 1년 후급이며, 월할계산한다.)

<공사비 지출액>

○ 20×1년 1월 1일 ₩8,000 ○ 20×1년 7월 1일 ₩6,000

<차입금 내역>

성격	금액	차입일	상환일	이자율
특정	₩5,000	20×1. 1. 1	20×2. 10. 31	연 4%
일반A	3,000	20×0. 8. 1	20×2. 12. 31	연 6%
일반B	6,000	20×1. 9. 1	20×3. 12. 31	연 5%

① ₩200

② ₩280

③ ₩480

④ ₩536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특정차입금 이자는 200원이고, 일반차입금 자본화 산정액 336원은 실제 이자 280원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차입원가 자본화액은 48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특정차입금은 20×1년 초부터 건설에 사용된다. 일시 운용수익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당기 이자 $5,000 \times 4\% = 200$원을 자본화 대상으로 계산한다.

2. 일반차입금의 실제 당기 이자는 A가 $3,000 \times 6\% = 180$원, B가 $6,000 \times 5\% \times 4/12 = 100$원이다. B는 9월 1일 차입했으므로 **4개월만 반영**한다. 합계는 280원이다. 연평균 잔액은 $3,000 + 6,000 \times 4/12 = 5,000$원이므로 자본화이자율은 $280/5,000 = 5.6\%$이다.

3. 연평균 공사비 지출액은 $8,000 + 6,000 \times 6/12 = 11,000$원이다. 특정차입금 5,000원을 제외한 일반차입금 적용 대상은 6,000원이므로 산정액은 $6,000 \times 5.6\% = 336$원이다.

4. **자본화액은 실제 발생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차입금 산정액 336원은 실제 이자 280원을 초과하므로 280원만 반영한다. 총 자본화액은 $200 + 280 = 480$원으로 ③이다. 536원은 실제 발생액 한도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액면금액이 ₩100,000인 상품권 1,000매를 한 매당 ₩95,000에 발행하였다. 고객은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20×1년 12월 31일까지 상품권 사용에 의한 매출로 200매가 회수되었으며, 그 매출과정에서 ₩1,500,000이 거스름돈으로 지급되었다. 20×1년에 (주)한국이 상품권과 관련하여 수익(순매출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① ₩16,500,000

② ₩17,500,000

③ ₩19,000,000

④ ₩20,0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회수된 200매에 대응하는 실제 발행대가는 19,000,000원이다. 여기서 **고객에게 돌려준 현금 1,500,000원을 차감**하므로 순매출액은 17,500,000원이다.

계산 과정

발행 시 처리: 상품권을 발행해 받은 현금은 재화 등을 제공할 의무에 대응하는 선수금 성격의 계약부채이다. 발행 자체로 매출을 인식하지 않으며, 액면 100,000원이 아니라 실제 발행대가인 매당 95,000원이 거래대가이다.

회수분에 대응하는 대가: 연말까지 사용되어 회수된 상품권은 200매이다. 이에 대응하는 실제 발행대가는 200 × 95,000 = 19,000,000원이다. 액면 합계 200 × 100,000 = 20,000,000원과의 차액 1,000,000원은 할인 발행한 부분이므로 매출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금 반환 반영: 회수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거스름돈 1,500,000원은 재화 제공에 대한 대가로 남은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순매출액은 19,000,000 − 1,500,000 = 17,500,000원이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800매는 수익 인식의 근거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번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년 상품권 관련 순매출액은 17,500,000원으로, 선택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품 1상자마다 경품교환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 2개씩을 동봉한다. 경품의 매입원가는 ₩1,500이며, 경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4개의 쿠폰과 ₩1,000의 현금을 제시해야 한다. 20×1년 동안 상품 10,000상자를 상자당 ₩2,000에 판매하였다. 회사의 과거 경험에 근거할 때 발행된 쿠폰의 30%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상당하는 양의 경품이 구매되었다. 20×1년 기간 중 총 500개의 경품이 쿠폰과 교환되었다. (주)한국의 20×1년 말 경품충당부채는?

① ₩3,000,000

② ₩2,250,000

③ ₩750,000

④ ₩50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예상 경품 1,500개 중 이미 교환한 500개를 제외하면 미이행 수량은 1,000개이다. 고객의 현금 지급액을 뺀 개당 순부담액은 500원이므로 **경품충당부채는 500,000원**이다.

계산 과정

예상 쿠폰 회수량: 상품 10,000상자에 상자당 쿠폰 2개를 동봉하였으므로 발행 쿠폰은 20,000개이다. 이 중 30%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상 회수 쿠폰은 20,000 × 30% = 6,000개이다.

예상 경품 수량: 경품 하나를 청구하려면 쿠폰 4개가 필요하므로 전체 예상 교환 경품은 $\frac{6{,}000}{4} = 1{,}500$개이다. 이미 500개를 교환했으므로 기말 현재 **미이행 예상 경품은 1,000개**이다.

개당 순부담액: 경품의 매입원가는 1,500원이지만 고객이 교환할 때 현금 1,000원을 함께 지급한다. 따라서 회사가 경품 하나를 제공하는 데 부담하는 순원가는 1,500 − 1,000 = 500원이다.

기말 경품충당부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예상 경품 수량에 개당 순부담액을 곱하여 1,000 × 500 = **500,000원**을 인식하므로 ④에 해당한다. 경품을 미리 구입한 것은 경품재고를 확보한 것이며, 이미 고객에게 교환해 준 것으로 보아 미이행 의무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시장이자율이 연 9%일 때 액면금액이 ₩10,000이고, 만기가 3년인 회사채를 ₩9,241에 할인발행하였다. 이 회사채는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한다. 이 회사채의 20×2년 1월 1일 장부금액이 ₩9,473이라면, 이 회사채의 표시이자율은? (단, 모든 화폐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6.0%

② 6.2%

③ 6.5%

④ 7.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장부금액 증가분 232원이다. 유효이자비용 832원에서 이를 빼면 **현금 지급이자는 600원**이므로 액면금액 대비 표시이자율은 6.0%이다.

계산 과정

유효이자비용: 할인발행한 사채는 기초 장부금액에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인 유효이자율을 곱해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20×1년 이자비용은 9,241 × 9% = 831.69원이며, 문제의 반올림 조건에 따라 832원이다.

할인발행차금 상각: 20×2년 1월 1일 장부금액은 전년도 말 이자 지급과 상각을 반영한 금액이다. 장부금액 증가액 9,473 − 9,241 = 232원이 첫해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다. **유효이자비용에서 현금 지급이자를 뺀 차액**만큼 사채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표시이자율 역산: 현금 지급이자는 832 − 232 = 600원이다. 표시이자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표시이자율은 $\frac{600}{10{,}000} \times 100 = 6.0\%$이다. 유효이자율 9%와 표시이자율을 구별한다.

따라서 표시이자율은 6.0%이며, 선택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사채발행차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할인발행되면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하고 할증발행되면 매년 증가한다.

② 사채발행차금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장부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은 매년 동일하다.

③ 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에 따른 사채발행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④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사채의 만기에 걸친 사채이자의 합계액은 현금이자지급액(표시이자)에서 할인발행차금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유효이자율법에서 할인발행 사채는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할증발행 사채는 이자비용이 감소한다. 일정한 현금이자와의 차이인 **발행차금 상각액은 두 경우 모두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고정 표시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액면금액을 상환하는 일반적인 사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효이자율법의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일정한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① X: 할인발행 사채는 할인차금 상각으로 장부금액이 액면금액을 향해 증가하므로 이자비용도 증가한다. 할증발행 사채는 할증차금 상각으로 장부금액이 감소하므로 이자비용도 감소한다. 선지는 두 방향을 반대로 설명하였다.

② X: 정액법에서는 매년 사채발행차금 상각액이 일정하므로 고정 표시이자와 합산하거나 차감한 이자비용도 일정하다. 그러나 장부금액은 매년 변하므로 장부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비율은 일정하지 않다.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유효이자율법이다.

③ O: 할인발행에서는 증가하는 이자비용에서 일정한 현금이자를 뺀 할인차금 상각액이 증가한다. 할증발행에서는 일정한 현금이자에서 감소하는 이자비용을 뺀 할증차금 상각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상각액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기간이 경과할수록 커진다.

④ X: 할인발행 사채의 각 기간 이자비용은 현금이자에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더한다. 따라서 만기까지 이자비용 합계는 총현금이자에 최초 할인발행차금을 더한 금액이며, 차감하는 것은 할증발행의 경우이다.

따라서 유효이자율법에서 할인·할증차금 상각액이 모두 매년 증가한다는 ③이 옳다.

NoteBase

문 17.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채로 계상한다.

② 유형자산을 현물출자로 받은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부주식의 공정가치 또는 당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③ 유상증자로 보통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직접 발생한 주식발행비용은 별도의 계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④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미교부주식배당금은 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아니라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를 교부하기 위한 **자본 내부의 항목**이다. 따라서 주식이 아직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 결의 후 아직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금액으로, 부채가 아니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 등으로 전환하는 자본 내부 거래이며, 현금배당처럼 기업 자원이 유출되는 채무와 구별한다.

② O: 주식을 발행하여 유형자산을 현물출자받으면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나 교부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일반적인 현물출자에서는 받은 재화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이를 사용하고, 그렇지 못하면 교부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한다. 주식 액면금액만을 취득원가로 삼는 것은 아니다.

③ O: 보통주 발행에 직접 귀속되는 주식발행비용은 자본거래의 원가이다. 따라서 당기비용이나 별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식 발행대가에서 차감하여 순자본 증가액을 표시한다. 발행과 무관한 일반 관리비까지 모두 차감한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감자차손은 자본금 감소액보다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이 클 때 발생하는 자본거래 차손이다.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를 당기손익의 손실로 바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교부주식배당금을 부채로 계상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18. 12월 결산법인인 (주)한국은 20x1년 2월 1일 액면금액 ₩5,000인 자기회사 발행주식 50주를 주당 ₩10,000에 취득하였다. 위 주식 중 30주를 1개월 후 주당 ₩13,000에 재발행하고, 2개월 후 나머지 20주를 주당 ₩9,000에 재발행하였을 때, 자기주식 회계처리가 20x1년도 (주)한국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자기주식 회계처리는 원가법을 따른다.)

① 이익잉여금 ₩70,000 증가

② 이익잉여금 ₩70,000 감소

③ 자본잉여금 ₩70,000 증가

④ 자본잉여금 ₩70,000 감소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첫 재발행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 90,000원에 두 번째 처분손실 20,000원을 상계한다. 남는 70,000원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증가**로 반영된다.

계산 과정

취득시 원가법: 자기주식은 액면금액이 아니라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50주 × 10,000원 = 500,000원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여 자본에서 차감한다. 이후 재발행시 제거할 자기주식 원가도 주당 10,000원이다.

첫 번째 재발행: 30주를 주당 13,000원에 재발행하여 390,000원을 받고 자기주식 원가 300,000원을 제거한다. 차액 30 × (13,000 − 10,000) = 90,000원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자본잉여금에 가산한다. 이는 당기손익이 아니다.

두 번째 재발행: 20주를 주당 9,000원에 재발행하여 180,000원을 받고 자기주식 원가 200,000원을 제거한다. 차액 20 × (10,000 − 9,000) = 20,000원의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앞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 상계**한다. 처분이익이 충분하므로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연간 순효과: 모든 자기주식을 재발행하여 자기주식 잔액은 없고, 자본잉여금은 90,000 − 20,000 = **70,000원 증가**한다. 따라서 ③에 해당한다. 액면금액은 주당 취득원가와 재발행대가의 차이를 구하는 이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의 주식은 시장에서 주당 ₩1,000에 거래되고 있다. 다음 기말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한국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우선주는 없다.)

당기순이익	₩100,000	주가수익비율(PER)	5(500%)
부채총계	₩3,000,000	자본금	₩200,000
자본총계	₩1,000,000		

① 200주

② 300주

③ 400주

④ 500주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주가 1,000원을 PER 5배로 나누면 주당순이익은 200원이다. 당기순이익 100,000원을 200원으로 나누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500주**이다.

계산 과정

1. 주가수익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PER 5는 **5배**를 뜻하므로 주당순이익은 주당순이익=1,000÷5=200원이다. 표의 500%를 0.05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는다.

2. 우선주가 없으므로 당기순이익 전액을 보통주 주당순이익 계산에 사용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00,000÷200=500주
따라서 정답은 ④ **500주**이다.

3. 자본금 200,000원을 시장가격 1,000원으로 나누면 안 된다. **자본금은 액면금액을 기초로 한 장부금액**이며 시장가격과 기준이 다르다. 이 문제는 주가·PER로 주당순이익을 구한 뒤 순이익으로 주식수를 역산하므로 부채총계와 자본총계도 계산에 필요하지 않다.

NoteBase

문 20. 20×1년 1월 1일 현재 (주)한국의 유통중인 보통주 발행주식은 10,000주(주당 액면금액 ₩10,000)이고, 우선주 발행주식은 5,000주(주당 액면금액 ₩10,000)이다. 우선주는 비누적적·비참가적이며, 연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5%이다.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자기주식(보통주) 1,000주를 구입하였다. (주)한국의 20×1년도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이 ₩500이라면 당기순이익은? (단, 20×1년도 배당결의가 있었고, 유통보통주식수의 가중평균은 월할 계산한다.)

① ₩6,500,000

② ₩7,250,000

③ ₩7,500,000

④ ₩8,25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9,500주이므로 보통주 귀속이익은 4,750,000원이다. 여기에 **배당 결의된 우선주 배당금 2,500,000원을 더하면** 당기순이익은 7,250,000원이다.

계산 과정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6월은 10,000주이고, 7월 1일 자기주식 1,000주를 취득한 후 7~12월은 9,000주이다. 자기주식은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하므로 $10{,}000 \times \frac{6}{12} + 9{,}000 \times \frac{6}{12} = 9{,}500$주이다.

보통주 귀속이익: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보통주 귀속이익은 500 × 9,500 = 4,750,000원이다.

우선주 배당금과 당기순이익: 비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는 당기에 배당 결의된 약정 배당금만 보통주 귀속이익 계산에서 차감한다. 그 금액은 5,000 × 10,000 × 5% = 2,50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보통주 귀속이익 4,750,000 + 우선주 배당금 2,500,000 = 7,250,000원이다. 보통주 배당금을 이익에서 추가 차감하는 계산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7,250,000원으로, 선택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21. ㈜한국은 장기건설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에 계약금액 ₩22,000의 사무실용 빌딩 건설계약을 하였다. 20×1년 말 현재 공사진행률은 20%, 인식한 이익의 누계액은 ₩1,400이고, 추정총계약원가는 ₩15,000이다. 또한, 20×2년 말 현재 공사진행률은 50%, 인식한 이익의 누계액은 ₩2,000이고, 추정총계약원가는 ₩18,000이다. 20×2년에 발생한 계약원가는?

① ₩6,000

② ₩6,600

③ ₩7,000

④ ₩9,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각 연도 말 누적수익에서 누적이익을 차감하면 누적원가는 각각 3,000원과 9,000원이다. 두 누적원가의 차이인 **6,000원이 20×2년 발생 계약원가**이다.

계산 과정

20×1년 말 누적계약원가: 진행률 20%에 따른 누적 계약수익은 22,000 × 20% = 4,400원이다. 누적이익 1,400원은 누적수익에서 누적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누적계약원가는 4,400 − 1,400 = 3,000원이다. 이는 추정총계약원가 15,000원의 20%와도 일치한다.

20×2년 말 누적계약원가: 진행률 50%에 따른 누적 계약수익은 22,000 × 50% = 11,000원이다. 누적이익 2,000원을 차감하면 누적계약원가는 11,000 − 2,000 = 9,000원이다. 이는 해당 연도 말 추정총계약원가 18,000원의 50%이다.

20×2년 발생원가: 20×2년 말 누적원가 9,000원에서 전기 말 누적원가 3,000원을 차감하면 9,000 − 3,000 = **6,000원**으로, ①에 해당한다. 추정총계약원가가 변경되었으므로 진행률의 증가분에 한 시점의 총원가만 곱하지 않고 **각 연도 말 누적액의 차이**를 구한다.

NoteBase

문 22.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② 회계변경의 회계처리방법 중 전진법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지만 재무제표의 확정성을 손상시킨다.

③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요한 오류가 후속기간에 발견된 경우, 해당 후속기간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전진법은 과거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으므로 **확정성은 유지하지만 기간 간 비교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 기간까지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소급적용과 장단점이 반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회계정책 변경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소급 적용한다. 비교기간 정보를 조정하고,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이전의 누적효과는 그 기간 기초 이익잉여금 등 관련 자본항목에 반영한다. 기준서의 별도 경과규정이나 소급적용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예외를 적용한다.

② X: 전진법은 과거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당기 이후에 변경 효과를 반영한다. 따라서 **과거 재무제표의 확정성을 유지**하는 반면, 변경 전후에 서로 다른 추정이나 기준이 반영되어 비교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선지는 두 특성을 반대로 설명했다.

③ O: 회계추정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오류수정처럼 과거를 다시 쓰지 않는다. 효과가 당기에만 미치면 당기에, 당기와 미래기간 모두에 미치면 해당 기간들에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잔존내용연수 변경은 변경 시점 이후 감가상각비에 반영한다.

④ O: 중요한 전기오류를 발견하면 원칙적으로 비교표시되는 해당 과거 기간의 재무정보를 소급 재작성한다. 오류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보다 앞서 발생했다면 그 기간의 자산·부채·자본 기초잔액을 수정한다. 실무적으로 소급 재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와 구별한다.

따라서 전진법의 확정성과 비교가능성을 뒤바꾸어 설명한 ②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23. (주)한국의 20×1년도 법인세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년 12월 31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잔액은 없다. 법인세법상 FVPL(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기타 법인세법과의 차이는 손금불산입한다.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단,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높으며, 법인세율은 20%이고 이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00,000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 200,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60,000
◯ FVPL금융자산평가이익 20,000

① ₩440,000
② ₩436,000
③ ₩424,000
④ ₩42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일시적차이의 세금효과는 이연법인세로 조정되므로 법인세비용에는 영구적차이인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효과가 남는다. 당기법인세 428,000원에서 순이연법인세수익 8,000원을 차감한 **42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기법인세: 문제에서 지정한 세무조정을 적용하면 과세소득은 1,900,000 + 200,000 + 60,000 − 20,000 = 2,14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법인세는 2,140,000 × 20% = 428,000원이다. 이는 납부할 세액으로,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법인세비용과 구별한다.

차이의 성격: 접대비 한도초과액 200,000원은 이후에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구적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60,000원은 회계상 비용과 세무상 손금의 귀속시기 차이로서 미래 공제효과를 만든다. FVPL 금융자산평가이익 20,000원은 현재 익금불산입되지만 미래 실현시 과세효과를 만드는 일시적차이이다.

이연법인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60,000 × 20% = 12,000원이다. FVPL 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20,000 × 20% = 4,000원이다. 기초잔액이 없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액을 반영하여 **순이연법인세수익 8,000원**이 발생한다.

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428,000원에서 이연법인세자산 증가액 12,000원을 빼고 이연법인세부채 증가액 4,000원을 더한다. 428,000 − 12,000 + 4,000 = **420,000원**으로, ④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세차감전이익에 영구적차이만 더한 2,100,000원에 세율 20%를 적용한 금액과도 일치한다.

NoteBase

문 24. (주)한국의 20×1년 당기순이익은 ₩1,7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한국의 20×1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단,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계산한다.)

◯ 법인세비용 ₩300,000
◯ 감가상각비 150,000
◯ 사채의 발행 700,000
◯ 선급비용의 감소 20,000
◯ 미지급비용의 증가 30,000
◯ 매출채권(순액)의 증가 12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
◯ 미지급법인세의 변동은 없음

① ₩1,780,000
② ₩1,880,000
③ ₩1,980,000
④ ₩2,08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처분손실·선급비용 감소·미지급비용 증가를 가산하고 매출채권 증가를 차감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98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당기순이익 1,700,000원에서 시작한다. 현금 지출 없이 비용으로 반영된 감가상각비 150,000원을 가산한다.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원도 **투자활동 거래의 손익을 영업활동에서 제거**하기 위해 가산한다. 처분대금 자체는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다.

2. 영업 관련 운전자본을 조정한다. 선급비용 감소 20,000원은 과거에 지급한 금액이 당기 비용으로 인식된 부분이므로 가산한다. 미지급비용 증가 30,000원은 당기 비용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가산한다. 매출채권 순액 증가 120,000원은 매출 등에 비해 현금 회수가 덜 된 부분이므로 차감한다.

3. 사채 발행 700,000원은 **재무활동 유입**이므로 영업활동에 넣지 않는다. 법인세비용 300,000원은 이미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었다. 미지급법인세 변동이 없어 별도 조정할 금액이 없으며, 세전이익으로 환원하여 세금 납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도 가산·차감이 상쇄된다.

4. 만 원 단위로 합산하면
$170 + 15 + 20 + 2 + 3 - 12 = 198$이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980,000원,** ③이다.

NoteBase

문 25. 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이다.

② 리스개시일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로 리스자산의 최초인식일이 된다.

③ 리스의 분류는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리스제공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운용리스라는 설명은 이 분류기준과 반대이다.

선지별 해설

리스약정일은 계약조건이 정해지는 시점이고, 리스개시일은 자산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다.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운용리스 분류와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 인식을 구별한다.

① O: 리스계약일과 주요 계약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이 리스약정일이다. 정식 계약서 작성보다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앞섰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O: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사용 가능하게 하는 날이 리스개시일이다. 리스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이 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최초 인식하며, 계약 체결일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

③ O: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는 리스약정일에 정한다. 현행 리스회계에서 이 구분은 리스제공자 회계의 분류이며, 리스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는 단일모형을 적용한다.

④ X: 기초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이다. 운용리스는 그러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는 리스이므로, 선지는 두 분류를 뒤바꾸었다.

따라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26. 다음은 20×1년 12월 31일 (주)한국의 재무상태표 항목들 중 일부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1년 12월 31일 현재 (주)한국의 당좌비율은? (단, %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현금 ₩2,000,000
◯ 매입채무 1,500,000
◯ 매출채권(순액) 2,000,000
◯ 단기차입금 2,500,000
◯ 재고자산 500,000
◯ 유동성장기부채 2,000,000
◯ 단기매매자산 1,000,000
◯ 장기차입금 3,000,000
◯ 건물(순액) 6,000,000
◯ 자기주식 1,500,000

① 61.1%
② 66.7%
③ 83.3%
④ 91.7%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당좌자산은 현금·순매출채권·단기매매자산을 합한 5,000,000원이다. 이를 **유동부채 6,000,000원으로 나누면** 당좌비율은 반올림하여 83.3%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좌자산 분류: 현금 2,000,000원, 매출채권 순액 2,000,000원, 단기매매자산 1,000,000원을 합하여 5,000,000원이다. 재고자산 500,000원은 유동자산이지만 당좌자산에는 포함하지 않고, 건물은 비유동자산이므로 제외한다.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차감항목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유동부채 분류: 매입채무 1,500,000원, 단기차입금 2,500,000원, 유동성장기부채 2,000,000원을 합하여 6,000,000원이다. 유동성장기부채는 원래 장기부채였어도 단기 상환 부분으로 재분류된 것이므로 분모에 포함한다. 장기차입금 3,000,000원은 비유동부채이므로 제외한다.

비율 계산: 당좌비율은 재고 판매에 의존하지 않고 유동부채를 갚을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다. $\frac{5{,}000{,}000}{6{,}000{,}000} \times 100 = 83.333\ldots\%$이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83.3%이다.

따라서 당좌비율은 83.3%이며, 선택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7. ㈜한국의 20×1년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20×1년 기초원가(기본원가, prime costs)는? (단, 기초재고자산은 없다.)

◯ 재료 구입액은 ₩60,000, 재료 기말재고액은 ₩10,000이다.
◯ 노무원가는 공장에서 ₩50,000이 발생하였으며, 노무원가의 60%는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이다.
◯ 전환원가는 ₩90,000이다.
◯ 제조경비는 ₩30,000이며, 전액 제조간접원가이다.

① ₩70,000
② ₩75,000
③ ₩80,000
④ ₩85,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총재료소비액에는 간접재료원가 1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접재료원가는 40,000원이다. 여기에 직접노무원가 30,000원을 더한 **기초원가는 70,000원**이다.

계산 과정

직접노무원가: 공장 노무원가 50,000원 중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 60%가 직접노무원가이므로 50,000 × 60% = 30,000원이다. 나머지 20,000원은 간접노무원가이다.

제조간접원가: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다. 따라서 제조간접원가는 90,000 − 30,000 = 60,000원이다. 여기에는 간접재료원가, 간접노무원가 20,000원, 제조경비 30,000원이 포함되므로 간접재료원가는 60,000 − 20,000 − 30,000 = 10,000원이다.

직접재료원가: 기초재료가 없으므로 총재료소비액은 구입액 60,000원에서 기말재고 10,000원을 차감한 50,000원이다. 이 금액에서 **간접재료원가 10,000원을 제외**해야 하므로 직접재료원가는 50,000 − 10,000 = 40,000원이다.

기초원가: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이다. 따라서 40,000 + 30,000 = **70,000원**으로, ①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초원가는 기간 초의 재고원가를 뜻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8. (주)한국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한국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20×1년도 재료계정의 기초금액은 ₩20,000, 기말금액은 ₩30,000, 매입한 재료금액은 ₩570,000이다. 재료는 모두 직접재료로 사용되고 간접재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당기총제조원가는 ₩1,300,000,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80,000이다. 실제로 발생한 직접노무원가는 ₩500,000(직접노무시간은 20,000시간)이며, 제조간접원가는 ₩30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① ₩10

② ₩12

③ ₩15

④ ₩2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직접재료원가는 560,000원이다. 당기총제조원가에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빼면 예정배부액 240,000원이므로, 20,000시간으로 나눈 **예정배부율은 시간당 12원**이다.

계산 과정

1. 재료 사용액을 구한다. 재료는 전부 직접재료이므로
$20,000 + 570,000 - 30,000 = 560,000$원
이 직접재료원가이다. 매입액 570,000원을 그대로 사용하면 기초·기말 재료 잔액을 누락한다.

2. 정상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직접노무는 실제원가,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액**을 사용한다. 따라서 당기총제조원가에서 직접원가를 차감하면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을 얻는다.
$1,300,000 - 560,000 - 500,000 = 240,000$원

3. 실제 직접노무시간에 예정배부율을 곱한 금액이 예정배부액이므로
$240,000 \div 20,000 = 12$원/시간
정답은 ② **시간당 12원**이다.

4. 실제 제조간접원가 300,000원으로 계산한 시간당 15원은 실제배부율이므로 답이 아니다. 당기제품제조원가 1,280,000원은 재공품 기초·기말 변동을 반영한 완성품의 원가로, 당기총제조원가 1,300,000원과 구별한다.

NoteBase

문 29.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 A와 B, 그리고 두 개의 제조부문 C와 D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년 7월의 각 부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D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제공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계
	A	B	C	D	
A	800시간	800시간	1,600시간	800시간	4,000시간
B	320kw	400kw	480kw	800kw	2,000kw

- 제조간접원가는 A부문에서 시간당 ₩200, B부문에서 kw당 ₩500의 변동원가가 발생하며, C부문과 D부문에서 각각 ₩1,150,000과 ₩1,050,000이 발생하였다.
- 보조부문의 원가는 A, B 순으로 단계배분법을 사용하여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 D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에 대한 단위당 기초원가(prime costs)는 ₩3,000이며, 생산단위는 1,000단위이다.
- 갑제품에 대한 월초 및 월말 재공품은 없다.

① ₩4,000
② ₩5,000
③ ₩6,000
④ ₩7,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A를 먼저, B를 나중에 배부하면 D가 부담하는 제조간접원가는 총 2,000,000원이다. 생산량 1,000단위로 나눈 2,000원에 **단위당 기초원가 3,000원**을 더하면 제품원가는 5,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보조부문 발생원가: A는 총 4,000시간 × 200원 = 800,000원, B는 총 2,000kw × 500원 = 1,000,000원의 원가가 발생한다. 원가 발생액 계산에는 표의 전체 제공량을 쓰되, 배부 비율을 계산할 때는 자기부문 제공량을 제외한다.

A부문 배부: A를 먼저 배부하므로 자기부문 800시간을 제외한 B 800시간, C 1,600시간, D 800시간의 합계 3,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B 배부액은 $800{,}000 \times \frac{800}{3{,}200} = 200{,}000$원, C는 400,000원, D는 200,000원이다.

B부문 배부: B의 배부대상 원가는 자체 발생액 1,000,000 + A에서 받은 200,000 = 1,200,000원이다. 단계배분법에서는 **이미 배부를 마친 A로 다시 배부하지 않는다**. 자기부문과 A를 제외하고 C 480kw, D 800kw의 합계 1,280kw를 기준으로 하므로 D 배부액은 $1{,}200{,}000 \times \frac{800}{1{,}280} = 750{,}000$원이다. C에는 나머지 450,000원이 배부된다.

D 제품 단위당 원가: D의 제조간접원가는 자체 발생액 1,050,000 + A 배부액 200,000 + B 배부액 750,000 = 2,000,000원이다. 재공품이 없으므로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frac{2{,}000{,}000}{1{,}000} = 2{,}000$원이다. 기초원가인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 3,000원에 이를 더하면 5,000원이다. C 자체 발생액 1,150,000원은 D 제품에 더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5,000원이며, 선택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30. ㈜한국은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A와 B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으며, 배부해야 할 제조간접원가는 ₩100,000이다. ㈜한국은 제품별 원가계산을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하고자 한다. 다음은 원가담당자가 분석한 활동원가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제조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제품 A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제품 A	제품 B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00	₩2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400
단위당 직접노무시간	2시간	2시간

활동	활동원가	원가동인	원가동인 사용량	
			제품 A	제품 B
작업준비	₩40,000	작업준비시간	50시간	150시간
검사	₩60,000	생산량	50단위	100단위

① ₩50

② ₩100

③ ₩150

④ ₩2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제품 A의 제조간접원가는 기존 방법에서 단위당 400원,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 단위당 600원이다. 직접원가는 그대로이므로 **단위당 원가가 200원 증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배부방법 변경으로 달라지는 것은 제조간접원가이다.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변하지 않으므로, 두 방법의 제품 A 단위당 제조간접원가 차이를 계산한다. 생산량은 표에서 A 50단위, B 100단위이다.

기존 방법은 직접노무시간이 아니라 직접노무원가를 배부기준으로 한다. A의 총직접노무원가는 200×50=10,000원, B는 400×100=40,000원이다. 따라서 A의 배부비율은 10,000÷50,000=20%이며, 제조간접원가 100,000원 중 20,000원이 A에 배부된다. 단위당 금액은 20,000÷50=400원이다.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 작업준비원가 배부율은 40,000÷(50+150)=시간당 200원이다. A의 작업준비시간은 50시간이므로 10,000원이 배부된다.

검사원가의 원가동인은 생산량이다. 배부율은 60,000÷(50+100)=단위당 400원이며, A의 생산량 50단위에 20,000원이 배부된다. 따라서 A에 배부되는 제조간접원가 합계는 10,000+20,000=30,000원, 단위당 금액은 30,000÷50=600원이다.

A의 단위당 총원가도 기존에는 직접재료원가 100+직접노무원가 200+제조간접원가 400=700원이고, 변경 후에는 100+200+600=900원이다. 증가액은 900−700=200원으로 제조간접원가 차이 600−400과 일치한다.

따라서 제품 A의 단위당 원가는 200원 증가하며 ④이다.

NoteBase

문 31.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공정에서 공손품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공손품은 제품을 검사하는 시점에서 파악된다. 정상적인 공손품은 품질검사 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의 5% 비율로 발생한다. 7월의 생산자료를 보면, 월초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20%) 3,000개, 당월 생산착수량 37,000개, 당월 생산착수 완성품 27,000개, 월말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60%) 2,000개, 공손품 8,000개이다. 품질검사가 생산공정의 80% 시점에서 실시되는 경우, 정상공손수량은?

① 1,350개

② 1,450개

③ 1,500개

④ 1,600개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월말재공품은 검사시점 80%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제외하고, 당월 완성된 합격품 30,000개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5%를 적용한 **정상공손수량은 1,500개**이다.

계산 과정

검사 통과 여부: 정상공손은 **품질검사 시점을 통과한 합격품 수량의 5%**로 산정한다. 품질검사는 공정의 80% 지점인데 월말재공품은 완성도 60%이므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월말재공품 2,000개는 정상공손 계산의 기준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월 검사통과 합격품: 월초재공품 3,000개는 완성도 20%로 출발하므로 당월 완성될 때 80% 검사시점을 통과한다. 여기에 당월 착수하여 완성한 27,000개를 더하면 검사통과 합격품은 3,000 + 27,000 = 30,000개이다. 수량흐름도 투입 3,000 + 37,000 = 40,000개가 완성품 30,000개, 월말재공품 2,000개, 공손품 8,000개로 배분되어 일치한다.

정상공손수량: 검사통과 합격품 30,000개에 정상공손률 5%를 적용하면 30,000 × 5% = **1,500개**로, ③에 해당한다. 실제 공손품 8,000개 자체에 5%를 곱하는 것이 아니며, 당월 착수완성품만 계산하여 월초재공품의 검사통과를 빠뜨려서도 안 된다.

NoteBase

문 32. (주)한국은 결합생산공정을 통해 결합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각 결합제품은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추가가공한 후 판매될 수도 있다. 추가가공원가는 각 제품별로 추적가능하고 모두 변동원가이다. (주)한국은 20×1년에 결합제품 A와 B를 모두 추가가공하여 전량 판매하였으며, 20×1년 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35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균등매출총이익률법에 따라 결합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할 때, 제품 A의 단위당 원가는?

구분	제품 A	제품 B
생산 및 판매량	1,000단위	2,000단위
분리점에서의 총판매가치	₩250,000	₩330,000
추가가공원가	₩50,000	₩90,000
추가가공 후 매출액	₩300,000	₩400,000

① ₩50

② ₩160

③ ₩210

④ ₩22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전체 최종매출액 700,000원에 대한 총원가 490,000원의 비율은 70%이다. A 매출액 300,000원에 이를 적용한 총원가 210,000원을 1,0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21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은 **각 제품의 최종 매출액에 동일한 매출총이익률**이 적용되도록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두 제품을 모두 추가가공하여 판매했으므로 최종 매출액은 300, 000 + 400, 000 = 700, 000원이다.

2. 결합원가와 추가가공원가를 모두 합한 총원가는 350, 000 + 50, 000 + 90, 000 = 490, 000원이다. 총원가율은 490, 000/700, 000 = 70%, 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3. 제품 A의 총원가는 300, 000 × 70% = 210, 000원이다. 이 중 추가가공원가 50,000원을 차감한 160,000원이 A에 배부되는 결합원가이다. 제품 B의 결합원가도 400, 000 × 70% − 90, 000 = 190, 000원으로, 합계 350,000원이 실제 결합원가와 일치한다.

4. 묻는 것은 결합원가 부분만이 아니라 **추가가공원가를 포함한 제품 A의 단위당 원가**이다.
210, 000 ÷ 1, 000 = 210원
따라서 정답은 ③ **210원**이다. 160원은 단위당 결합원가 배부액, 50원은 단위당 추가가공원가에 불과하다. 분리점 판매가치는 이 방법의 총원가율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33. 다음 중 원가추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정분석법을 사용하면 각 계정을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는데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

② 산포도법은 비정상적인 관찰자료를 쉽게 식별하고 많은 관찰자료를 고려해 원가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주관이 개입되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단점도 있다.

③ 고저점법은 최대조업도 원가자료와 최저조업도 원가자료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두 원가수치의 차이는 고정원가라고 가정한다.

④ 회귀분석법은 결정계수(R^2)가 1에 가까울수록 만족스러운 추정을 달성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고저점법은 관련범위 안에서 고정원가가 일정하다고 본다. 따라서 최고·최저 조업도에서 발생한 원가 차이는 고정원가가 아니라 **조업도 변화에 따른 변동원가 차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계정분석법은 담당자의 경험과 각 원가계정의 성격을 바탕으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한다. 간편하지만 혼합원가 등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분석자의 판단**이 개입하므로 자의적인 추정이 될 수 있다.

② O: 산포도법은 조업도와 원가의 관찰값을 그래프에 표시하여 전체 분포와 비정상적인 관찰값을 눈으로 확인한다. 여러 자료의 경향을 고려할 수 있지만 추세선을 시각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③ X: 고저점법은 원가가 가장 크고 작은 점이 아니라 **조업도가 가장 높고 낮은 두 점**을 이용한다. 관련범위 안에서 고정원가는 일정하므로 두 원가수치의 차이는 조업도 변화에 따른 **변동원가의 차이**이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최고조업도 원가-최저조업도 원가최고조업도-최저조업도로 구하며, 고정원가는 어느 한 점의 총원가에서 그 점의 변동원가를 차감하여 구한다.

④ O: 결정계수 R^2는 관찰된 원가 변동 중 회귀모형으로 설명되는 비중을 나타낸다. 1에 가까울수록 표본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 원가함수의 적합도가 높다. 다만 결정계수가 높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나 새로운 조업도 범위에서의 예측 정확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34. (주)한국은 반도체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며, 제품제조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고정제조간접원가 당기 발생액은?

◯ 당기 제품생산량: 10,000개, 당기 제품판매량: 8,000개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00
◯ 변동판매관리비 당기 발생액: ₩400,000
◯ 고정판매관리비 당기 발생액: ₩200,000
◯ 매출액: ₩4,000,000
◯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500,000
◯ 기초제품 재고와 기초 및 기말재공품 재고는 없다.

① ₩500,000
② ₩550,000
③ ₩600,000
④ ₩65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매출액에서 판매분 변동제조원가·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차감하면 고정제조간접원가는 500,000원이다.

계산 과정

변동매출원가: 기초제품이 없으므로 판매된 8,000개에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00원을 곱한다. 변동매출원가는 8,000 × 300 = 2,400,000원이다. 생산량 10,000개를 전부 매출원가로 처리하지 않으며, 미판매 2,000개의 변동제조원가 600,000원은 기말제품에 남는다.

공헌이익: 매출액 4,000,000원에서 변동매출원가 2,400,000원과 변동판매관리비 400,000원을 차감하면 공헌이익은 1,200,000원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역산: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은 공헌이익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재고에 배분하지 않고 전액 기간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발생액은 1,200,000 − 고정판매관리비 200,000 − 영업이익 500,000 = 50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 고정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500,000원으로, 선택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5. (주)한국은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기말 직접재료 재고량이 1,000kg일 때,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

◯ 직접재료 표준투입량 5kg
◯ 직접재료 표준가격 ₩25/kg
◯ 직접재료 실제 구입가격 ₩30/kg
◯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 ₩25,000(불리)
◯ 실제 제품 생산량 640단위

① ₩10,000(유리)
② ₩10,000(불리)
③ ₩20,000(유리)
④ ₩20,000(불리)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구입가격차이에서 구한 구입량은 5,000kg이고, 기말재고를 제외한 실제 사용량은 4,000kg이다. 표준사용량 3,200kg보다 800kg 많이 사용했으므로 **20,000원 불리**한 능률차이가 발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직접재료 능률차이는 실제 사용량과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사용량의 차이를 표준가격으로 평가한다. 구입수량과 사용수량은 재료재고 변동 때문에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실제 사용량을 구한다.

구입가격차이는 실제 구입수량에 실제가격과 표준가격의 차이를 곱한 금액이다. 실제가격 30원/kg이 표준가격 25원/kg보다 5원/kg 높아 25,000원의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으므로, 실제 구입수량은 25,000÷5=5,000kg이다.

당기 초에 영업을 개시했으므로 기초 직접재료 재고는 없다. 실제 사용량은 기초재고 0+구입량 5,000−기말재고 1,000=4,000kg이다. 구입한 5,000kg 전체를 사용량으로 계산하면 기말재고를 누락하게 된다.

실제 생산량은 640단위이고 제품 1단위당 표준투입량은 5kg이므로, 허용 표준사용량은 640×5=3,200kg이다. 실제 사용량은 이보다 4,000−3,200=800kg 많다.

초과 사용량을 표준가격으로 평가하면 능률차이는 800×25=20,000원이다. 표준보다 많은 재료를 사용했으므로 불리한 차이이며, 실제가격 30원을 곱하는 것은 가격효과까지 섞는 오류이다.

따라서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 20,000원 불리이며 ④이다.

NoteBase

문 36. (주)한국은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기계작업을 통해 제품 A와 B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의 연간 사용시간은 총 30,0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20×1년도 예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1년에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구분	제품 A	제품 B
단위당 판매가격	₩500	₩800
단위당 변동원가	₩300	₩400
단위당 기계소요시간	10시간	40시간
연간 최대시장수요량	1,000단위	1,500단위

① ₩400,000

② ₩450,000

③ ₩500,000

④ ₩55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계 1시간당 공헌이익이 A는 20원, B는 10원이므로 A를 수요한도까지 우선 생산한다. 남은 시간에 B를 생산하면 **최대공헌이익은 4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제약자원당 공헌이익: 단위당 공헌이익은 A가 500 − 300 = 200원, B가 800 − 400 = 400원이다. 그러나 기계시간이 30,000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제품 한 단위가 아니라 **기계 1시간당 공헌이익**을 비교해야 한다. A는 $\frac{200}{10} = 20$원/시간, B는 $\frac{400}{40} = 10$원/시간이므로 A를 우선 생산한다.

A 생산계획: A의 최대시장수요량은 1,000단위이므로 이를 전량 생산·판매한다. 필요한 기계시간은 1,000 × 10 = 10,000시간이고, 공헌이익은 1,000 × 200 = 200,000원이다. A의 수요 상한을 넘겨 생산하는 것은 최적 판매계획이 아니다.

B 생산계획: A 생산 후 남는 기계시간은 30,000 − 10,000 = 20,000시간이다. B는 단위당 40시간이 필요하므로 $\frac{20{,}000}{40} = 500$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최대수요 1,500단위 이내이며 공헌이익은 500 × 400 = 200,000원이다.

최대공헌이익: A 1,000단위와 B 500단위의 조합으로 기계시간 30,000시간을 모두 사용하며, 총공헌이익은 200,000 + 200,000 = **400,000원**이다. 따라서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7. 영업레버리지도(DOL)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경우에 영업이익은 0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① 단위당 변동원가가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높아진다.

② 안전한계율이 높아지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③ 단위당 판매가격이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④ 고정원가가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고정원가가 증가하면 공헌이익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따라서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영업레버리지도는 높아진다**.

선지별 해설

영업레버리지도는 매출 변화에 대한 영업이익의 민감도이다. 판매량 Q, 판매단가 P, 단위당 변동원가 v, 고정원가 F라 하면 DOL=(Q(P-v))/(Q(P-v)-F)=1+F영업이익이다. 아래 비교는 다른 조건이 같고 영업이익이 양수인 경우이다.

① O: 단위당 변동원가가 증가하면 공헌이익과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고정원가는 그대로이므로 영업이익에 대한 고정원가의 비중이 커지고 영업레버리지도는 높아진다. 양의 고정원가가 있는 통상적인 원가구조를 전제로 한 관계이다.

② O: 안전한계율은 실제 매출액 중 손익분기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율이다. 동일한 선형 원가·매출 조건에서는 DOL=1안전한계율이므로 안전한계율이 높을수록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안전한계율은 백분율 숫자가 아니라 비율로 대입한다.

③ O: 판매단가가 증가하면 같은 판매량에서 공헌이익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고정원가는 그대로이므로 영업이익에 대한 고정원가 비중이 낮아져 영업레버리지도가 낮아진다.

④ X: 고정원가가 증가하면 공헌이익은 변하지 않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한다. 따라서 DOL=공헌이익영업이익의 분모가 작아져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

따라서 고정원가 증가가 영업레버리지도를 낮춘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38. ㈜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 중 어느 것을 생산 및 판매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외부 경제연구소로부터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한국은 미래의 시장 상황을 호황과 불황으로 나누고, 외부 경제연구소의 예측정보를 얻기 전에 각 상황에 대한 확률과 영업이익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한국이 외부 경제연구소로부터 시장 상황에 대한 완전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 시장 상황에 대한 완전정보의 대가로 외부 경제연구소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대안	시장 상황	
	호황(확률: 60%)	불황(확률: 40%)
제품 A	₩2,000	₩1,000
제품 B	₩1,500	₩2,500

① ₩200
② ₩300
③ ₩400
④ ₩5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보가 없을 때는 B의 기대이익 1,900원이 최대이다. 완전정보로 상황별 최선의 제품을 고르면 기대이익은 2,200원이므로 **정보의 최대 대가는 차액 3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정보가 없으면 시장 상황을 알기 전에 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각 제품의 기대영업이익은
A: $2,000 \times 0.6 + 1,000 \times 0.4 = 1,600$원
B: $1,500 \times 0.6 + 2,500 \times 0.4 = 1,900$원
따라서 **B를 선택하여 1,900원**을 기대한다.

2. 완전정보가 있으면 실제 시장 상황에 맞춰 더 유리한 제품을 선택한다. 호황에는 A의 2,000원, 불황에는 B의 2,500원이 더 크므로
$2,000 \times 0.6 + 2,500 \times 0.4 = 2,200$원이다. 정보가 있어도 시장 상황의 발생 확률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3. 정보의 가치는 **정보를 얻어서 추가로 늘어나는 기대이익**이다.
$2,200 - 1,900 = 300$원
따라서 최대 지불금액은 ② **300원**이다. 이 금액을 지급하면 순기대이익이 정보 없이 B를 선택할 때와 같아지고, 더 지급하면 오히려 불리하다.

NoteBase

문 3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정상태표의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출자금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가산항목에 표시한다.

④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을 소유하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정답 2번

①

정부출자금의 취득원가는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선지의 종목별 이동평균법은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이면 자산의 장부가액, 유상거래이면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가산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②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NoteBase

④

무형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정액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소유 시점부터 임의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무형자산의 평가)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 ·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NoteBase

문 40. 중앙부처 A의 다음 재정운영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는?

◯ 사업총원가 ₩30,000 ◯ 일반수익 ₩12,000
◯ 비배분수익 2,000 ◯ 비배분비용 3,000
◯ 관리운영비 7,000 ◯ 사업수익 20,000

① 재정운영순원가: (-) ₩6,000, 재정운영결과: (-) ₩18,000
② 재정운영순원가: (+) ₩6,000, 재정운영결과: (+) ₩18,000
③ 재정운영순원가: (-) ₩18,000, 재정운영결과: (+) ₩6,000
④ 재정운영순원가: (+) ₩18,000, 재정운영결과: (+) ₩6,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사업순원가 10,000원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면 **재정운영순원가 (+)18,000원**이다. 여기서 일반수익 12,000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000원**이다.

계산 과정

문제에 제시된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의 순서로 계산한다. 비용은 더하고 관련 수익은 빼는 순원가 방식이므로 기업회계의 수익−비용 형태와 부호를 혼동하지 않는다.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30,000−20,000=10,000원이다. 사업수익은 이 단계에서 이미 차감되므로 이후 다시 빼지 않는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다. 10,000+7,000+3,000−2,000=18,000원이므로 (+)18,000원이다.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은 비용이지만 비배분수익은 수익이므로 계산 방향이 반대이다.

이 문항에서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제시된 일반수익을 차감하여 구한다. 따라서 18,000−12,000=6,000원으로 (+)6,000원이다. 일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를 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최종 재정운영결과를 구하는 단계에서 반영한다.

전체 항목으로 검산하면 비용 합계는 30,000+7,000+3,000=40,000원, 수익 합계는 20,000+2,000+12,000=34,000원이다. 비용에서 수익을 뺀 6,000원은 앞서 계산한 재정운영결과와 같다.

따라서 재정운영순원가 (+)18,000원, 재정운영결과 (+)6,000원으로 ④이다.

NoteBase